

【논문】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체’에 관하여*

박 정 일

【주제분류】 분석철학, 논리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프레게, 의미체, 의미, 지시체, 뜻

【요약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중요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의미체’(Bedeutungskörper)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다음을 보이고자 한다. 『탐구』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의미체’는 바로 『논고』에서 거론되는, 특히 논리적 상항의 ‘의미’이다. 이를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의미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언급은 『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언급에서 제시된 것을 ‘의미체 비유’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의미체 비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것이 과연 『논고』에 실제로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서 먼저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과 같은 논리적 상항이 의미(Bedeutung)를 갖는지 여부이다. 셋째,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이 전기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이라면, 이제 그의 의미이론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힐베르트와 바일의 형식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프레게의 생각을 수용한 결과 형성된) 의미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넷째,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이라면, 『논고』의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미체’ 문제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논고』의 집필을 포기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들어가는 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중요한 수수께끼 중 하나는 ‘의미체’(Bedeutungs körper)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의미체’라는 용어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논리-철학 논고』(이하 ‘『논고』’로 약칭함)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후기 철학의 저작인 『철학적 탐구』(‘『탐구』’로 약칭함)에서는 단 한 번 나온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¹⁾

559. 우리들은 가령 이 문장 속에서의 낱말의 기능에 관해 이야기했으면 한다. 마치 문장이 그 속에서 낱말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어떤 메커니즘인 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어떤 점에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백일하에 드러나는가? 왜냐하면 실은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으며, 우리는 실로 그 문장 전체를 보기 때문이다! 기능은 계산의 경과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 ((의미체.))

프레게의 맥락 원리에 따르면, “문장의 맥락 안에서 낱말의 의미를 물어야 하지, 따로 떼어놓고 물어서는 안 된다.”²⁾ 이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맥락 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 속에서의 낱말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문장이 그 속에서 낱말이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낱말의 기능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기능은 “계산의 경과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 한 문장이 아니라, 계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체계나 언어놀이에서 그 기능은 밝혀진다.³⁾

1) 이 글에서 『철학적 탐구』와 『논리-철학 논고』의 번역은 대부분 이영철 교수의 번역을 따르고 있다.

2) 프레게(2003), 39쪽.

3) 요컨대 메커니즘인 것은 문장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며,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게의 맥락원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단어가 기계부품에 그리고 문장이 기계에 비교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언어가 기계라면, 문장은 기계부품에 해당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심리철학적 소견들』, 40) “‘이 명제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그렇지만, 오도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명제는 우리의 언어에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은 아무런 해명 없이 이중괄호 안에 ‘의미체’라는 말을 툭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언급에서 ‘의미체’란 무엇인가? 또한 ‘의미체’는 누구의 용어인가? 그것은 프레게 또는 러셀의 용어인가 아니면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인가?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누구의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미체’라는 용어를 사용되고 있는가?⁴⁾

이 글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보이고자 한다. 『탐구』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의미체’는 바로 『논고』에서 거론되는, 특히 논리적 상항의 ‘의미’이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체는 그가 프레게의 의미 이론의 어떤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요컨대 ‘의미체’는 전기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생각을 응축한 것이며, 『탐구』에서의 위의 논의는 전적으로 『논고』에 대한 (그리고 『논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프레게의 생각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⁵⁾

이를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의미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언급은 비트겐슈타인이 구술한 것을 바이즈만(F. Waismann)이 기록한 『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The Voices of Wittgenstein*)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언급에서 제시된 것을 ‘의미체 비유’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의미체 비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것이 과연 『논고』에 실제로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논의되

고 이는 아주 특정한 놀이를 의미한다. 우리는 거기에 쓰여 있는 이 구조가 우리의 언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 물리적인 구조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뜻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한 놀이에서의 동작(move, 수)이라고 말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것이 명제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Wittgenstein (2003), p.119)

- 4) 글록(H. Glock, 1996)은 의미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프레게로부터 연유한 것이지만, 프레게의 그러한 생각은 『논고』에서 거부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은 프레게의 것이며, ‘의미체’는 『논고』에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의미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것이다. 한편 한대석(Han, 2013)은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은 러셀의 것이며, ‘의미체’는 러셀의 유형이론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만들어낸 용어이고, 『논고』에서는 ‘의미체’와 관련된 이러한 생각은 분명하게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5) 다시 말해 (각주 4에서 지적된) 글록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을 뿐이며, 한대석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도 옳지 않다.

겠지만, 여기에서 먼저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과 같은 논리적 상황이 의미(Bedeutung)를 갖는지 여부이다. 셋째, 논리적 상황이 의미를 갖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의미체 비유’가 『논고』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이 전기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이라면, 이제 그의 의미이론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프레게의 생각을 수용한 결과 형성된) 의미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것이라면, 『논고』의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미체’ 문제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논고』의 집필을 포기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체 비유’

‘의미체’라는 말이 등장하는 앞 절의 인용문은 『탐구』에서 547절로부터 시작되는, 부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나오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부정에 대한 논의에서 문제 삼는 것은 한 낱말의 의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556. 부정에 대해 “X”와 “Y”라는 두 개의 상이한 낱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를 생각하라. 이 중 “X”는 긍정을 낳지만, 이 중 “Y”는 강화된 부정을 낳는다. 그 밖에 그 두 낱말은 똑같이 사용된다.—자, “X”와 “Y”가 문장들 속에서 반복 없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이에 대해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중 부정이 긍정인 경우(“ $\sim \sim p = p$ ”)의 부정과 이중 부정이 강화된 부정의 경우(“아냐, 아냐!”)의 부정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전자를 “X”로 나타내고 후자를 “Y”로 나타낸 후, 낱말 “X”와

“Y”의 의미가 동일한지를 묻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쇠는 섭씨 100도에서는 녹지 않는다’와 ‘2 곱하기 2는 5가 아니다’는 같은 부정인가?”라고 묻기도 하며(551절), “이 막대기는 길이가 1미터이다”와 “여기에 군인 1명이 서 있다”라는 문장에서 각각의 ‘1’의 의미가 동일한지를 묻기도 한다(552절).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탐구』의 맥락에서는 “한 낱말의 의미”가 문제되고 있지만, 556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부정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X”, 즉 ‘~’은 『논고』에서는 ‘논리적 상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적 상황들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이 점을 주목할 때 ‘의미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의미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직접 해명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포기 이후에, 슈리크(M. Schlick)와 바이즈만(F. Waismann)과의 대화(『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에서 의미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논고』에서 이와 관련된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나의 오류는 분석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어떤 것, 즉 밝혀져야 하는 어떤 구조가 명제에서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한 표현의 뜻이 말하자면, **표현 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는 우리의 오도적인 언어의 사용에 의해 생겨난다—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육면체들, 프리즘들, 피라미드들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공간에서 완전히 볼 수는 없다고 상상해 보자. 오직 각각의 프리즘의 한 표면만, 예를 들어 한 정사각형만, 그리고 각각의 피라미드의 밑면만 색으로 칠해졌다고 하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공간에서 정사각형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평면도형들을 함께 임의로 결합시킬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표면들의 뒤에 있는 물체들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표면들이 함께 맞추어질 수 있게 하는 **법칙**은 표면들이 정사각형들인 그 볼 수 없는 물체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한 낱말은, 말하자면, 그것 뒤에 ‘의미의 물체’(body of meaning)를 갖고 있으며, 이 의미체는 그 낱말에 대해 성립하는 문법적 규칙들에 의해 기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문법적 규칙들은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의미체의 **본성**을 따로따로 펼치는 것

(Auseinanderbreitung)이 될 것이다.⁶⁾

비트겐슈타인은 이 인용문에서 하나의 **비유**(이 비유를 ‘**의미체 비유**’라고 부르기로 하자.)를 제시하고 있다. 유리로 만들어진 정육면체들, 프리즘들, 피라미드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물체의 한 면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면 뒤에 있는 물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추측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면 뒤에 있는 물체들이 전체 법칙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첫째, 한 **낱말**은 그것 뒤에 의미체를 갖고 있다는 것, 둘째, 이 의미체는 그 낱말에 대해 성립하는 문법적 규칙들에 의해 기술된다는 것, 셋째, 그 문법적 규칙들은 의미체의 본성을 따로따로 펼치는 것이 될 것임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의미체를 받아들인 것이 자신의 오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철학적 문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장미는 빨갱다”(“The rose is red”)와 “둘의 두 배는 넷이다”(“Twice two is four”)에서 각각의 “이다”(“is”)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비교는 그 자체로 낱말 “이다”(“is”)가 상이한 경우에 그것 뒤에 상이한 **의미체들(meaning-bodies)**을 지니고 있다고 시사한다. 그것은 아마도 매번 정사각형 평면이지만, 한 경우에 그것은 프리즘의 끝-평면이고 다른 경우에는 피라미드의 끝-평면이다.⁷⁾

그런데 『논고』에서는 한 낱말은 오직 ‘의미’(Bedeutung)만을 지니며, 명제는 오직 ‘뜻’(Sinn)만을 지닌다.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진다. 오직 명제 연관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진다.”(3.3) 이제 위의 인용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미체 비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 **낱말**

6) Wittgenstein(2003), p.133.

7) Wittgenstein(1974), p.54.

이 그것 뒤에 '의미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해명하고 있는 '의미체'가 『논고』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논고』의 '뜻'(Sinn)이 아니라 '의미'(Bedeutung)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탐구』 559절에서 아무런 해명 없이 언급된 '의미체'가 곧 『논고』의 '의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는다.

그렇다면 의미체와 관련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그의 독자적인 것인가? 한 낱말은 의미체를 갖고 있고 그 낱말과 관련된 법칙이나 규칙, 또는 문법이 그 의미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논고』 고유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프레게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레게는 『산술의 근본 법칙 II』 §15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산술의 이러한 처리를 아마도 또한 형식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위에서 명시한 뜻에서 이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산술의 순수한 논리적인 본성을 특징지으며, 하지만 수기호들이 자의적인 규칙들에 따라 처리되는 내용이 없는 도형들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규칙들은 아마도 필연적으로 기호들의 지시체들(Bedeutungen)로부터 따라 나오며 이 지시체들은 산술의 본래적인 대상들이다: 자의적인 것은 그저 기호법(Bezeichnung)일 뿐이다.⁸⁾

프레게는 이 인용문에서 기호들의 지시체들(Bedeutungen)로부터 그 규칙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프레게가 이 언급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 $1 + 2 = 3$ ”과 같은 산술의 참인 명제들과 규칙들이 ‘1’, ‘2’, ‘3’과 같은 수기호들의 지시체들로부터, 또한 ‘+’와 ‘=’로 형성된 함수 기호의 지시체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며,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문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다.

“두 개의 부정이 긍정을 산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정에

8) Frege(1903), p.156.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나는 기호법의 신화를 발명하기 직전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부정의 의미로부터 “ $\sim \sim p$ ”가 p 를 의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부정 기호에 대한 규칙들이 부정의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어떤 뜻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문법의 규칙들이 존재하게 되게끔 말이다.⁹⁾

이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생각, 즉 기호들의 지시체들로부터 규칙들이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신화’라는 비판적 지적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는 규칙들은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규칙이 의미로부터 따라 나온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한 단어의 사용의 규칙들만을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개별적인, 연결되지 않은 지시규정들(Vorschrift)만을 알 뿐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된 사람은 이것을 본다. 프레게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만일 뜻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규칙들은 임의로 설정될 수 없을 것이다’(§91). ‘오히려, 규칙들은 기호들의 지시체들(Bedeutungen)로부터 반드시 따라 나온다’(§158).¹⁰⁾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직접 『산술의 근본 법칙 II』 §158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프레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바로 그 생각이란 규칙들이 기호들의 지시체들(Bedeutungen)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의미체 비유’에서 핵심적인 생각도 바로 이것이었다. 즉 문법적 규칙들은 이미 주어진 의미체로부터 따라 나오며, 그렇게 해서 의미체의 본성을 따로따로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규칙과 지시체에 대한 프레게의 기본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의미체 비유가 거론된 언급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오류를 지적하고 밝히고 있는 것

9) Wittgenstein(1974), p.53.

10) Wittgenstein(2003), p.135.

이 다름 아닌 『논고』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의미체’라는 용어는 프레게의 용어도 아니며 러셀의 용어도 아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체’가 바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용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의미체’가 『논고』의 ‘의미’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본다.¹¹⁾

III. 부정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탐구』에서 거론된 ‘의미체’가 『논고』에서 거론된 ‘의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가능성은 비트겐슈타인이 『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과 『철학적 문법』에서 제시한 논의들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의미체’는 『논고』의 ‘의미’인가? 이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위의 의미체 비유가 『논고』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 같은 논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들에 대해 그 규칙들이 그 의미로부터 따라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논고』에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체’와 관련된 프레게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의미’(Bedeutung)를 프레게와 달리 ‘의미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부정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리학이 근본 개념들을 가진다면, 그 개념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떤 근본 개념 하나가 도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릇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결합들 속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한 결합에 대해 도입되고 나서, 다른 한 결합에 대해 또 한번 도입될 수 있다.

1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미체 비유로부터, 사실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체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62절에서 그는 “표기법의 배후에 그것의 문법이 본받는 어떤 실재”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부정이 도입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 $\sim p$ ” 형식의 명제들과 “ $\sim(p \vee q)$ ”, “ $(\exists x). \sim fx$ ” 등의 명제들에서 꼭 같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한 부류의 경우들에 도입하고, 그 다음 다른 부류의 경우들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두 경우에 **부정의 의미(Bedeutung)**가 같을지는 의심스러운 채로 남을 것이며, 그 두 경우에 동일한 기호 결합 방식을 이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451)¹²⁾

이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학의 근본 개념을 도입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령 부정은 모든 부류의 경우에 동시에 도입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류의 경우에 도입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Bedeutung)가 같은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¹³⁾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분명해 보이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부정의 의미”를 거론하면서 부정이 의미(Bedeutung)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분명해 보이는 사실을 혹자는 첫째,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 둘째, 『논고』의 근본 사상에 따르면 논리적 상황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점에 근거해서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일기 1914-1916』(이하 ‘일기’로 약칭함)을 영어로 번역한 앤스컴은 그 번역서의 옮긴이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여기와 다른 곳에서, “Bedeutung”을 “reference”(지시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사실들에 특히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a)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Sinn”과 “Bedeutung”(…)을 사용할 때 프레게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과 (b) 이러한 『일기』 단계에서의 그의 생각들과 『논고』의 생각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논고』에서 그는 논리적 상황들이나 문장들이 “Bedeutung”을 지닌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¹⁴⁾

12) 고딕체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13) 앤스컴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5.451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수학 원리』에서 명제 논리에서 “ \sim ”을 도입한 후에 양화 논리에서(*9와 *10에서) 다시 “ \sim ”을 도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참고: Anscombe(1959), p.145.

14) Wittgenstein(1961), p.37e, 옮긴이 각주. 또한 앤스컴은 Anscombe(1959), p.118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포겔린은 “논리적 사항들이 사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한 지시체(reference)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논고』의 중심 논제이다.”¹⁵⁾ 라고 말하면서, 앤스컴과 같이 『논고』의 “Bedeutung”을 “reference”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만일 우리가 용어 Bedeutung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reference”를 의미하는 전문적 사용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¹⁶⁾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서 『논고』의 위의 언급(5.451)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5.451의 “부정의 의미(Bedeutung)”와 관련된 문제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과연 부정은 Bedeutung을 지니는가? 그리고 이때의 Bedeutung은 “지시체”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때의 Bedeutung은 포겔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레게의 지시체(reference)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선 프레게의 의미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프레게는 그의 유명한 논문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 뜻(Sinn)과 지시체(Bedeutung)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A = A”와 “A = B”는 둘 다 동일성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적 내용에서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가령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둘 다 금성을 가리키지만, “셋별은 셋별이다”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소한 문장인데 반해,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천문학적 발견을 기록한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프레게는 이 인식적 차이를 해명하기 위해,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지시체(Bedeutung)는 같지만 뜻(Sinn)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프레게에 따르면, “고유 이름(단어, 기호, 기호들의 결합, 표현)은 그것의 뜻을 표현하고, 그것의 지시체(Bedeutung)를 지시하거나(*bedeutet*) 지칭한다(*bezeichnet*). 우리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표현하고 그 지시체를 지칭한다.”¹⁷⁾ 더 나아가 프레게는 모든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특히

15) Fogelin(1987), p.32.

16) Fogelin(1987), p.32.

17) Frege(1997), p.156.

한 문장(명제)에 대해서도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 문장의 지시체는 진리치(truth value)이고 그 문장의 뜻은 사상(Gedanke)이다. 가령,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둘 다 참(The True)이라는 대상을 가리키고 지시체는 동일하지만, 두 문장의 뜻, 즉 사상은 상이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문장의 진리치란 그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 이외의 다른 진리치란 없다. 간단히 말해 나는 그 하나를 참(The True)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거짓(The False)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단어들의 지시체와 관련된 모든 서술적 문장은 고유 명사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지시체는, 만일 그 문장이 지시체를 지닌다면, 참 또는 거짓이다.”¹⁸⁾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이전 단계에서 이러한 프레게의 의미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논고』 집필 이전에 작성한 「논리에 관한 단상들」(“Notes On Logic, September 1913”)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명제는 본질적으로 참-거짓이다. 따라서 한 명제는 (그것이 참인 경우와 그것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하는)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명제의 뜻(Sinn)이라고 부른다. 한 명제의 지시체(의미, Bedeutung)는 그 명제에 실제로 대응하는 사실이다. 나의 이론의 주요한 특징은 이러하다: p는 p가 아니다(not-p)와 동일한 지시체(의미, Bedeutung)를 지닌다.¹⁹⁾

이 언급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뜻-지시체 이론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뜻’(Sinn)과 ‘지시체’(Bedeutu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당시에 그는 프레게와 마찬가지로 한 명제에 대해서 뜻과 지시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 명제의 지시체(Bedeutung)는 그 명제에 실제로 대응하는 사실이고, 한 명제의 뜻은 참-거짓이라는 두 개의 극이며, 또는 한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 명제의 뜻이다.²⁰⁾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논고』 이전 단계에서 프레게의 뜻-지시체 이론

18) Frege(1997), pp.157-8.

19) Wittgenstein(1961), p.94.

20) 참고: Wittgenstein(1961), p.94.

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1914년 11월 2일 다음의 언급 이후로 뜻(Sinn)과 의미(지시체, Bedeutung)라는 용어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사용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다음과 같지 않은가: 거짓 명제들은 참인 명제들과 같이 그리고 그것의 거짓 또는 참과 독립적으로 하나의 뜻을 지니지만, 어떤 지시체(Bedeutung)도 지니지 않는다? (여기에 “Bedeutung”이라는 단어의 더 좋은 사용이 있지 않은가?)²¹⁾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은 거짓 명제들의 지시체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제 명제들이 지시체를 지니며 그 지시체가 사실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논고』 고유의 ‘뜻’과 ‘지시체’에 대한 사용으로 나아간다. 다른 아니라, 한 낱말은 오직 ‘의미’(Bedeutung)만을 지니며, 오직 명제만이 ‘뜻’(Sinn)을 지닌다는 것이다.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진다. 오직 명제 연관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진다.”(3.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고』에서 “Bedeutung”은 프레게의 생각과 구분하기 위해 “지시체(reference)”가 아니라 “의미(meaning)”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논고』에서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이 의미(Bedeutung)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5.451의 “**부정의 의미**”라는 표현 자체가 ‘~’이 의미(Bedeutung)를 지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의미(Bedeutung)를 지니지 않는다면, 5.451에서 나오는 “부정의 의미”라는 표현은 애초에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 우리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논고』에 따르면 “명제 ‘p’와 명제 “~p”는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한다.”(4.0621c) 따라서 ‘~’이 의미(Bedeutung)를 지니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논고』에서 “~p”와 같은 명제가 어떻게 뜻을 지닐 수 있는지는 결코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논고』에 따르면 뜻이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그러

21) Wittgenstein(1961), p.24.

한 명제가 뜻을 지니기 위해서는 ‘~’은 의미(Bedeutung)를 지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은 뜻(Sinn)을 지닐 수 없고(오직 명제만이 뜻을 지니므로), 또 뜻(Sinn)과 의미(Bedeutung)라는 장치를 제외하면, 『논고』에서는 한 명제가 뜻이 있다는 것을 해명하는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앤스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고』에서 ‘~’이 의미(Bedeutung)를 지니지 않는다면, 이제 그녀는 논리적 상황을 포함하는 모든 명제는 『논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코피(I. M. Copi)는 『논고』의 근본 사상을 “논리적 상황들은 **대상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로 해석한 후에, “비-요소 명제들은 대상들을 대표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림들의 모든 요소들은 대상들을 대표해야 하며, 따라서 비-요소 명제들은 그림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요소 명제들에 대해서만 그의 그림 의미 이론을 의도했다”²²⁾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코피의 주장은 소박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순이나 동어반복을 제외한 복합 명제도 뜻을 지니며, 따라서 그러한 명제도 그림이라는 언급들을 『논고』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IV. 의미와 규칙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이 의미(Bedeutung)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문제는 과연 앞에서 논의된 의미체 비유의 내용이 『논고』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과연 기호들의 의미(Bedeutung)로부터 그 규칙들이 따라 나온다는 생각이 『논고』에 실제로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언급을 살펴보아야 한다.

22) Copi(1958), p.149.

23) 참고: 4.0621, 5.2341, 5.512, 5.514 등.

“p”가 거짓이면 “~p”는 참이다. 그러므로 참인 명제 “~p”의 부분은 거짓인 명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란 갈고리 표시가 그 명제를 현실과 맞게 만들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것이 갈고리 표시 “~”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이한 부정의 기호들에 공통적인 모든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에 공통적인 것은 명백하게도 부정 자체의 의미(Bedeutung)로부터 따라 나와야만(hervorgehen) 한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의 기호들에서 그것 자신의 의미(Bedeutung)가 반영되어야 한다.²⁴⁾

이 언급은 1914년 11월 27일 『일기』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언급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이 언급이 『논고』의 ‘의미체’를 해명해 줄 가장 결정적인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선 “~p”에서 부정하는 것은 “p” 앞에 있는 “~”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호법에서 “~p”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기호들에 공통적인 것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을 주목하자. 그는 그것을 “이미 말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언급이란 1914년 10월 20일에 작성된 다음의 언급을 말한다.

“~p”에서 부정하는 것은 “p” 앞에 있는 “~”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호법에서 “~p”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기호들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p”, “~~~p”, “~p∨~p”, “~p.~p” 등등에서 공통적인 것이며, 이는 일반성 표시들에도 마찬가지이다.²⁵⁾

다음으로 비트겐슈타인은 “~p”, “~~~p”, “~p∨~p”, “~p.~p” 등등에서 공통적인 것이 “부정 자체의 의미”로부터 따라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 공통적인 것은 그것들에게 모두 성립하는 규칙들이다. 즉 그것은 다음의 논리적 동치들의 (무한) 연언이다.²⁶⁾²⁷⁾

24) Wittgenstein(1961), p.34.

25) Wittgenstein(1961), p.15.

26)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일기』 1914년 12월 4일의 다음 언급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등식 $\sim p = p$ 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p에 대한 기호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p”와 “ $\sim p$ ”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그 기호는 이중 부정이 한 긍정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속성들을 획득하게 된다.”(Wittgenstein(1961), p.34-35)

$$\begin{aligned} \sim p &\equiv \sim \sim \sim p \\ \sim p &\equiv \sim p \vee \sim p \\ \sim p &\equiv \sim p. \sim p \\ \sim \sim \sim p &\equiv \sim p \vee \sim p \\ \sim p. \sim p &\equiv \sim p \vee \sim p \end{aligned}$$

.....

즉 모든 “ $\sim p$ ”, “ $\sim \sim \sim p$ ”, “ $\sim p \vee \sim p$ ”, “ $\sim p. \sim p$ ” 등등이 바로 “ $\sim p$ ”와 논리적 동치라는 것, 또는 그것들이 모두 동일한 명제라는 점이 그것들에 공통적인 것이다.²⁸⁾

이제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집약되어 다시 등장한다.

“p”가 거짓이면 “ $\sim p$ ”는 참이다. 그러므로 참인 명제 “ $\sim p$ ”에서 “p”는 거짓인 명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 \sim ”이란 선이 그 명제를 현실과 맞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나 “ $\sim p$ ”에서 부정하는 것은 “ \sim ”이 아니라, p를 부정하는, 이러한 표기법의 모든 기호들에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 $\sim p$ ”, “ $\sim \sim \sim p$ ”, “ $\sim p \vee \sim p$ ”, “ $\sim p. \sim p$ ” 등등이 (무한히) 형성되게끔 하는 공통적 규칙이다. 그리고 이 공통적인 것이 부정을 반영한다. (5.512)

이제 우리는 앞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5.512에서 말하는 “ $\sim p$ ”, “ $\sim \sim \sim p$ ”, “ $\sim p \vee \sim p$ ”, “ $\sim p. \sim p$ ” 등등이 (무한히) 형성되게끔 하는 공통적 규칙이 바로 위의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512와 (앞에서 인용된) 1914년 11월 27일의 기록을 비교하면, 5.512에는 다음의 중요한 언급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에 공통적인 것은 명백하게도 부정 자체의 의미(Bedeutung)로부터 따라 나와야만 한다.”

27)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무한 연언이나 무한 선언을 허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자. 참고: 박정일(2014b).

28) 참고: “p가 q로부터, 그리고 q가 p로부터 따라 나온다면, 그것들은 하나의 동일한 명제이다.”(5.141).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왜 의미체 비유에서 핵심적인 이 내용을 제외시켰는가? 혹자는 이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체에 대한 생각을 『논고』 단계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사실상 5.512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램지는 『논고』에 대한 서평(“Critical Notice”(1923))에서 5.512를 인용하면서 자신은 5.512의 “이 공통적인 것이 부정을 반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²⁹⁾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반영하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반영하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 5.512와 1914년 11월 27일의 언급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반영하다’(spiegeln, widerspiegeln, mirror)는 ‘빛이 반사하여 비치다’, 또는 ‘거울에 비추어지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어떤 거울에 책상의 거울상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거울상을 보고서 실제의 책상이 어떠한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때 책상의 거울상은 거울에서 반영된 것이고, 실제의 책상은 반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S에서 A가 B를 반영하고 있다면(또는 B가 A에 의해 반영되어 있다면), B는 A의 거울상이며, 우리는 S에 있는 거울상 B로부터 A가 어떠한지를 끌어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 또한 ‘반영하다’라는 용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1914년 10월 11일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어려움은 이제 외견상 분석 가능성이, 또는 그것의 반대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예컨대 실제 주어-술어 사실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오직 언어로부터만 끌어낼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이나 그 반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보여져야만 한다.³⁰⁾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분석가능성 여부가 언어에 반영되어 있지 않

29) “나는 어떻게 그것이 부정을 반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하게도 그것은 두 명제들의 연언이 그것들의 뜻의 연언을 반영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Ramsey(1931), p.279.)

30) Wittgenstein(1961), p.10.

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언어로부터만 예컨대 주어-술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령 어떤 것(가령, “분석 가능성 여부”)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것(예컨대, “주어-술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그 반영된 것과 함께 오직 언어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1914년 11월 27일의 언급에서 “부정의 기호들에서 그것 자신의 의미(Bedeutung)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부정의 의미로부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이것들 모두에 공통적인 것은 명백하게도 부정 자체의 의미(Bedeutung)로부터 따라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에서 그 핵심 문장을 제외시킨 것은 “이 공통적인 것이 부정을 반영한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그 공통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부정으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것을(또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논고』의 다음 언급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표기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표기법 속에는 p를 부정하는 모든 명제들이 형성되게끔 하는 규칙, p를 긍정하는 모든 명제들이 형성되게끔 하는 규칙, p 또는 q를 긍정하는 모든 명제들이 형성되게끔 하는 규칙 등등이 존재한다. 이 규칙들은 그 상징들과 대등하며, 이 규칙들 속에서 그 상징들의 뜻이 반영된다.(5.514)

여기에서 p를 부정하는 모든 명제들이 형성되게끔 하는 규칙은 위에서 지적된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이며, 마찬가지로 p 또는 q를 긍정하는 모든 명제들이 형성되게끔 하는 규칙은 “ $p \vee q$ ”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모든 기호들에 성립되는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1) 사실상 1914년 11월 27일 기록과 5.512의 중요한 두 번째 차이는 전자에서는 “부정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단지 “부정”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5.512의 “이 공통적인 것이 부정을 반영한다”에서 “부정”이 결국에는 “부정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논문의 전체 논의가 주어질 때 비로소 분명해질 것이다.

부정의 경우, 이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으로부터 우리는 “ $\sim p$ ”라는 상징과 동치인 기호들(“ $\sim p$ ”, “ $\sim \sim \sim p$ ”, “ $\sim p \vee \sim p$ ”, “ $\sim p. \sim p$ ” 등등)을 끌어낼 수 있고 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그 규칙은 그 상징과 “대등(äquivalent)”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부정의 경우, 이러한 규칙(즉 위의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 속에 “ $\sim p$ ”라는 상징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규칙들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것들이 “ $\sim p$ ”라는 상징의 뜻으로부터 따라 나온다(또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그 규칙을 끌어낼 수 있다).³²⁾³³⁾

V. 의미와 구문론적 사용

앞에서 우리는 『논고』에서 ‘ \sim ’의 의미(Bedeutung)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부정은 의미를 지닌다. 자, 그렇다면 부정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논고』의 ‘기호’, ‘상징’, 그리고 ‘논리-구문론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논고』에 따르면 이름은 의미만을 지니고, 오직 명제만이 뜻을 지닌다. 그렇다면 의미와 뜻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호와 상징(표현)을 구분한다. 먼저 기호와 상징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
- 32) 마찬가지로 4.121, 즉 “논리적 형식은 명제에서 반영된다.”가 뜻하는 것은 논리적 형식과 관련된 것(사실이나 현실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것)은 그 반영된 것과 더불어 오직 명제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33) 혹자는 의미체 비유와 관련하여 『논고』 5.512에서 거론된 것은 단수인 “규칙”이고 『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에서 거론된 것은 복수인 “규칙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논리적 동치들의 연언”을 고려하면 이는 ‘규칙’(단수)이고, 그 연언의 각각의 연언자들을 고려하면 그것들은 ‘규칙들’(복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제의 뜻을 특징짓는 명제 각 부분을 나는 표현(상징)이라고 부른다.

(명제 자체도 하나의 표현이다.)

표현은 명제의 뜻을 위해 본질적인, 명제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표현은 어떤 하나의 형식과 내용을 특징짓는다. (3.31)

기호라는 것은 상징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3.32)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의 뜻을 특징짓는 각 부분”이 표현 또는 상징이고, 기호는 “상징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논고』에서 이름은 상징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기호는 단순 기호이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에 대해서도 기호와 상징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기호로서의 명제를 “명제 기호”, 상징으로서의 명제를 단순히 “명제”라고 부른다.

한편 위의 인용문 3.32는 우리가 상징으로부터 기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기호라는 것은 상징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기호로부터 상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또는 하나의 기호를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뜻이 있는 쓰임”이다.

기호들 속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기호의 적용이 보여 준다. 기호들이 삼키고 있는 것, 그것을 기호의 사용은 말해 준다. (3.262)

기호에서 상징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뜻이 있는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 (3.326)

예컨대 “김구”라는 기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상징을 이해하려면, “김구”라는 기호의 “뜻이 있는 쓰임”에 유의해야 한다. “김구”는 기호로도 파악될 수 있고, 상징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물리적(또는 현상론적)이거나 철자법적인 측면에서는 기호로 파악될 것이며, 뜻이 있는 쓰임(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징으로 파악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고』에서 기호와 상징의 구분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확정적인 뜻이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호 자체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호의 특징이 “실로 자의적”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음미하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두 대상을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그러나 상이한 두 **지칭 방식**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 두 대상의 공통적 표지를 결코 지적해 줄 수 없다. **왜냐 하면 기호는 실로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상이한 기호가 선택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디에 지칭에서 공통적인 것이 남아 있을까?(3.322)³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기호는 자의적이다. ‘김구’라는 기호는 임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기호는 일단 어떤 뜻이 있는 사용이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자의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한 기호는 ‘뜻이 있는 사용’과 더불어 상징이 되며, 그리하여 그것이 이름이나 복합체의 상징이라면 확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제 이 지점에서 기호나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임을 확인하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한 기호가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상실해 있다 (bedeutungslos). 이것이 오컴(Occam)의 격률이 지니는 뜻이다. (만일 모든 사정이 어떤 한 기호가 의미(Bedeutung)를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기호는 의미(Bedeutung)를 가진다.) (3.328)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이다. 다시 말해 “어떤 한 기호가 쓰이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상실해 있다(bedeutungslos).” 한편 자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확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곧 “뜻이 있는 사용”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뜻이 있는 사용”을 “논리-구문론적(logisch-syntaktischen) 사용”이라고 부른다(3.327). 말하자면 논리-구문론적 사용은 『논고』의 구문론에서 문제 삼는 기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또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용이다.³⁵⁾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상징이 기

34) 두 번째 고딕체 강조 표시는 필자가 한 것임.

35) 그러한 엄격한 규칙의 체계가 “논리적 구문론”(logische Syntax) 또는 “논리적 문법”(logische Grammatik)이며, 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우리는 같은 기호를 서로 다른 상징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리키는 기호들을 외면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오류들을 배제하는 어떤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문법—논리적 구문론—에 따르는 기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3.325)

호와 다른 측면을 지닌다면, 바로 그 측면은 “논리-구문론적 사용”, 또는 “뜻이 있는 쓰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용에 의해 한 상징은 확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다시 말해, 예컨대, ‘~’이라는 상징에 확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논리-구문론적 사용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논리-구문론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논고』의 다음 언급을 주의 깊게 읽으면 비로소 우리는 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명제 변항 값들의 규정은 그 변항을 공통의 표지로 가지는 **명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규정은 이러한 명제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 규정은 그러므로 오직 상징들만을 다루지, 그 의미(Bedeutung)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것, 즉 그 규정은 상징들에 관한 기술일 뿐 그 상징들에 의해 지칭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그 규정에 본질적이다.**

명제들의 기술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는 비본질적이다. (3.317)

3.317을 주의 깊게 읽으면(특히, 3.317c와 3.317d를 주목하자), 한 상징의 의미가 그 상징에 의해 지칭된 것(das Bezeichnete)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3.317을 해명하면서 이 점을 확인하기로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 변항 값들의 규정은 그 변항을 공통의 표지로 가지는 **명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에서 ‘소크라테스’를 s로, 또 ‘...는 현명하다’를 W로 나타내기로 하면, 그 문장은 Ws로 표기된다. 이제 개체 상항 s 자리에 변항 x를 넣기로 하자. 그러면 Wx가 나온다. 이제 우리는 x 자리에 s뿐만 아니라, p(플라톤), a(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을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Ws, Wp, Wa, 등등의 명제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명제들은 모두 Wx에서 변항 x를 “공통의 표지”로 가지고 있다. 이제 ‘...는 공정하다’를 J로 나타내기로 하면, Ws가 적법한 것과는 달리 WJ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

다. 그리하여 우리는 W_x 에 대해서 W_s, W_p, W_a , 등등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만, W_J 등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규정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때에는 W, s, p, a, J 와 같은 상징들만을 다루고 있지, 그 상징들의 의미는 다루고 있지 않다(3.317c). 그리고 3.317d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상징들의) 의미”를 “그 상징들에 의해 지칭된 것”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라는 상징의 의미는 ‘~’에 의해 지칭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논고』에서 ‘~’이라는 상징의 의미는 ‘~’에 의해 지칭된 것이며, 특히 우리의 논리-구문론적 사용에서 지칭된 것(*das Bezeichnete*, 기호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의미(*Bedeutung*)”에 대한 『논고』에서의 두 가지 사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논고』에서는 요소 명제를 이루는 이름들의 경우, 그 이름의 의미는 대상이다. “이름은 대상을 의미한다. 대상은 이름의 의미(*Bedeutung*)이다.”(3.203) 이 경우 대상은 세계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세계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반면에 『논고』에서 논리적 상황들의 의미는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의거한다.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4.0312) 전자의 경우, 이름의 의미(*Bedeutung*)가 대상일 때, 이때의 “*Bedeutung*”은 프레게의 그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논리적 상황의 의미(*Bedeutung*)는 오직 『논고』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논고』 고유의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특히 바로 이러한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이 지니는 의미(*Bedeutung*)를 새로운 자신의 용어, 즉 의미체라고 불렀던 것이다.

VI. 규칙과 의미

앞에서 우리는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의 기본 생각, 즉 기호들의 규칙들은 그 지시체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바로 이러한(유사한) 생각이 『논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지적이 옳다면, 『논고』를 포기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의 발전 과정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논고』를 포기한 후 비트겐슈타인에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규칙과 의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렇다: 의미로부터 규칙이 따라 나오는가, 아니면 규칙으로부터 의미가 규정되는가? 전자의 견해는 곧 의미체 이론이다. 즉 한 낱말의 의미체로부터 그 낱말의 문법적 규칙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이제 프레게의 견해를 거부한다.

규칙들은 의미들로부터 따라 나오는가?

이 물음과 함께 우리는 개념들의 참된 이론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짧은 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대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즉, 규칙들의 총체만이 한 낱말의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우리는 낱말의 의미가 원본적인 것이고 규칙들은 단지 이러한 의미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정확하게 이것은 현대 논리학에서 가장 선호되는 견해이다.³⁶⁾

물론 이 인용문에서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논리학에서 가장 선호되는 견해”라고 말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프레게의 견해이다. 즉 규칙들은 ‘지시체들’(Bedeutungen, 의미들)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는 낱말의 의미가 원본적인 것이고 규칙들은 단지 이러한 의미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프레게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트겐슈타인은 『논고』를 형성했던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도 포기한다.³⁷⁾ 즉 의미체

36) Wittgenstein(2003), p.143.

37) 글록(H. Glock)은 의미체와 관련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프레게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그 의미체 이론이 『논고』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가 옳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생각은 프레게에서 두드러지는데, 그는 최초로 자신이 수-낱말들의 참된 의미를 해명했다고 생각했고, 형식주의자들에 반대해서, 수학적 기호들의 사용에 대한 규칙들이 ‘그 기호들이 대표하는 것, 그것들의 의미들로부터 따라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에 『논고』의 말하기/보이기 구분 배후에 있는 생각들 중 하나는 우

로부터 규칙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대한 규칙들로 구성된다.” “규칙들의 총체만이 한 낱말의 의미를 생성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용 규칙들에 의해 한 낱말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지, 거꾸로 한 낱말의 의미(의미체)가 미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사용의 규칙들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논고』를 포기한 후, 비트겐슈타인에게는 프레게의 의미 이론을 극복할 새로운 의미 이론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이러한 철학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다행스럽게도(또는 절묘하게도) 힐베르트와 바일의 형식주의로부터 주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은 1930년 6월 19일 빈 학과의 술리크와 바이스만에게 형식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형식주의는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그르다.

형식주의에서 옳은 것은 모든 구문론(syntax)은 놀이의 규칙들의 체계로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바일이 형식주의자는 수학의 공리들을 장기 규칙들과 같은 것으로서 여긴다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수학의 공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문론이 임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

리가 한 기호의 의미로부터 그 기호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호는 이 규칙들에 앞서서 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Glock(1996), p.239) 그러나 “말하기-보이기” 구분으로부터 (의미체와 관련된) “의미-규칙”의 관계를 보이고자 하는 글록의 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명제 차원의 논의이고, 후자는 의미체와 관련된 낱말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대석(Han, 2013)은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이 러셀의 것이며, 이러한 러셀의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고』 3.331의 “러셀의 오류”를 “러셀의 의미체의 오류”로 간주한다. 더구나 그는 “의미체”를 러셀의 “논리적 유형”과 동일시한다(Han(2013), p.136). 더 나아가 그는 『논고』 3.334가 “의미체”의 개념에 대한 거부를 정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Han(2013), p.144). 그러나 그가 과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그는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3.334, 즉 “논리적 구문론의 규칙들은 각각의 기호가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우리들이 알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체 개념에 대한 거부를 정식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체 개념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지점이 형식주의가 옳은 곳이다. **프레게**는 산술의 수들이 기호라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옳았다. 결국 기호 ‘0’은 그것이 기호 ‘1’에 더해졌을 때 기호 ‘1’을 산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다른, 형식주의의 정당화되는 쪽, 즉 수학의 상징들은, 비록 그것들이 기호들은 아닐지라도, 지시체(Bedeutung)를 결여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프레게에게 갈래 길(alternative)은 이러했다: 우리는 종이 위에 있는 잉크로 된 선들을 다루거나 이 잉크로 된 선들은 **어떤 것**의 기호들이고 그것들의 지시체(Bedeutung)는 그것들이 대표하는 것이다. 장기 놀이 자체는 이러한 갈래 길들이 잘못 생각된 것임을 보여준다—비록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나무로 된 말(chessman)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형태들(figures, 장기 말들)은 어떤 것도 대표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프레게가 뜻하는 바의 어떤 지시체(Bedeutung)도 지니지 않는다. 여전히 세 번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기호들은 그것들이 그 놀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여기에서 (장기에서) 당신이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장기의 의미는 모든 장기 놀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³⁸⁾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의미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프레게에게는 수학에서 나오는 기호는 지시체를 지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잉크로 그려진 선들에 불과하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형식주의에서 옳은 것, 즉 “모든 구문론은 놀이의 규칙들의 체계로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프레게가 세 번째 가능성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한다. 즉 장기 놀이에서 장기 말, 예컨대 졸은 그 어떤 것도 대표하지 않지만(그리하여 프레게의 의미에서, 지시체를 지니지 않지만), 장기 놀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졸의 의미는, “그것에 대해 성립하는 규칙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수 기호(numeral, 숫자)의 의미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규칙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³⁹⁾

마찬가지로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프레게에 대한 위의 비판은 그대로 적용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의 음성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8) Wittgenstein(1979), pp.103-5. 또한 동일한 내용이 p.150에 다시 서술되고 있다.

39) 참고: Wittgenstein(1979), p.105.

따라서,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기호는 어떤 것을 지칭해야만 한다. 오직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술은 과학이다. 수학자들의 관심은 이 수들과 그것들의 속성들을 겨냥하고 있지, 기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표상할 따름이다.

만일 모든 낱말이 각각 한 대상을 지칭한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아니다', '또는', '만일'과 같은 낱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 낱말들에 의해서 지칭되는 어떤 것이 또한 존재하는가? 프레게는 사실상 이러한 귀결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낱말 '아니다'는 부정을 지칭한다. 낱말 '아니다'는 오직 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⁴⁰⁾

다시 말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프레게는 수기호와 마찬가지로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칭하는 지시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⁴¹⁾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잉크로 그려진 선에 불과하다는 두 가지 가능성만을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 번째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한 기호(또는 상징)의 의미는 "그것에 대해 성립하는 규칙들의 총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힐베르트와 바일의 형식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시체와 규칙에 대한 프레게의 생각과 또 프레게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자신의 의미체 이론을 극복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바, "형식주의에서 옳은 것은 모든 구문론은 놀이의 규칙들의 체계로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놀이의 규칙들의 체계"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중기 및 후기 철학에서 중심 개념인 '언어놀이'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VII. 맺는 말

지금까지 나는 『탐구』에서 단 한 번 언급된 '의미체'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어떤 형이상학적 실재도 아니고, 프레게의 '지

40) Wittgenstein(2003), pp.151-3.

41) 실제로 프레게에게는 '~'은 부정 함수 기호이고, 그것의 지시체는 함수이다. 참고: Frege (1997), p. 139.

시체'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논고』의 '의미'(Bedeutung)와 동일하다. 『논고』에서 '~'의 의미(체)는 '~'의 규칙들이 따라 나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논리-구문론적 사용"에 따라 지칭된 것이다.

이제 『논고』 집필 이전 단계에서의 의미체와 관련된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왜 비트겐슈타인은 『일기』에서 1915년 4월 12일과 15일, 다음과 같이 썼을까?

나는 명제의 본질로부터 개별적인 논리적 조작들(Operationen, 연산들)에
로 나아갈 수 없다.

즉 나는 어떤 의미에서 명제가 사태의 그림인지를 밝혀낼 수 없다.
나는 거의 나의 모든 노력을 포기할 듯하다.

사실상 나는 바로 이 언급들을 이해하는 것이 『일기』와 『논고』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14년 8월 22일로부터 시작하여 1917년 1월 10일에 끝나는 비트겐슈타인의 『일기』에서 이 인용문만큼 처절한 고백은 없기 때문이다.⁴²⁾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묘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림 이론의 기본 착상을 기록한 것은 1914년 9월 29일이다. 파리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여러 인형과 모형들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통해, 명제가 그림이라는 착상을 떠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착상은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완전히 일반화된 명제는 그림인가? 다시 말해 $(\exists \phi)(\exists x) \sim \phi x$ 와 같이 개체 상항과 술어 상항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오직 논리 상항들과 속박 변항들만 나오는 일반 명제가 과연 세계나 현실을 기술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비트겐슈타인은 1914년 10월 14일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 선행적인 명제라고 (다시 말해, 진정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틀간의 심각한 고민 후에 자신의 생각이 오류이며 그것이 명제(그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통찰은 1914년

42) 하지만 그는 그 고백을 한 후 약 2달여 기간 동안(1915년 6월 22일까지) 논리철학과 관련된 『논고』의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정리한다.

10월 18일, “대충 말하면, 어떤 명제든 도대체 뜻을 가질 수 있기 전에 모든 논리적 상황들은 Bedeutung(지시체, 의미)을 지녀야만 한다.”라는 말로 집약된다. 요컨대 $(\exists \phi)(\exists x) \sim \phi x$ 가 그림이라면, 그것은 뜻을 지니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 \exists ”나 “ \sim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은 Bedeutung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⁴³⁾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 \sim ”과 같은 논리적 상황들의 Bedeutung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 사실”에 대해 1914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1914년 12월 25일, 드디어 그의 근본 사상에 도달한다. 즉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⁴⁴⁾

이렇게 자신의 근본 사상이 주어진 후 비트겐슈타인은 약 4개월 가까운 기간이 지난 1915년 4월 15일,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할 것 같다는 힘겨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처절한 고백을 하도록 하였는가?

사실상 청년 비트겐슈타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1913년 9월에 작성된 “논리학에 관한 단상들”(“Notes on Logic”)에서 “나의 이론의 주요 특징은 이러하다: p는 p가 아니다(not-p)와 동일한 Bedeutung(지시체, 의미)을 지닌다.”라고 말했다. 이 언급을 보면 ‘ \sim ’는 어떤 Bedeutung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p”와 “ $\sim p$ ”는 동일한 지시체(의미)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14년 10월 18일, “논리적 상황들은 Bedeutung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구나 1914년 12월 25일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하지를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언급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중대한 모순이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논리적 상황의 의미(지시체)는 완전한 분석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에

43) 당시 비트겐슈타인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논리적 상황들은 진리함수적 연결사(ab-함수), 동일성 기호, 양화 기호(보편성)였다. 참고: Wittgenstein(1961), p.115.

44) 참고: 박정일(2014a).

게 한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이고, 그리하여 한 명제는 논리적 상황들을 포함하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로 분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논리적 상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다른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구문론적 적용’, ‘구문론적 처리’, ‘구문론적 사용’이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하는 것은 1915년 4월 15일 이후이다. 그 이후에 ‘대상’, ‘속성’, ‘관계’, ‘분석’, ‘원형’, ‘일반성’, ‘상징’ 등의 개념이 더 분명하게 정립되거나 확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한 변화는 바로 이 글에서 논의한 의미체와 관련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기본 생각, 즉 기호들의 *Bedeutung*으로부터 그 규칙들이 따라 나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름의 의미(*Bedeutung*)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그는 논리적 상황의 *Bedeutung*은 이름의 *Bedeutung*과는 『논고』의 체계에서는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전자는 오직 논리적, 구문론적 사용과 더 붙어서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생각을 더 이상 밀고 나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그의 후기 철학의 원숙한) 생각은 힐베르트와 바일의 형식주의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청년 비트겐슈타인은 프레게의 기본 생각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1915년 4월 15일, 비트겐슈타인이 처한 곤경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생각 속에서 자신이 도달한 모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한 명제의 *Bedeutung*이 사실이라는 생각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이름의 *Bedeutung*과 논리적 상황의 *Bedeutung*이 상이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는 명제의 본질로부터 개별적인 논리적 조작들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조작(연산, Operation)은 ‘~’과 같은 논리적 상황이다. 즉 그는 규칙과 지시체에 대한 프레게의 기본 생각을 받아들였지만, ‘~’과 같은 논리적 상황이 *Bedeutung*을 지니지만 대표하지를 않는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바로 이 새로운 생각에서 멈춰 섰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제가 그림이라는 자신의 기본적인 착상을 밀

고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즉 나는 어떤 의미에서 명제가 사태의 그림 인지를 밝혀낼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곤경에서 그를 구출한 것은 곧 “**구문론적 사용**”이다. 즉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문론적 사용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논고』 고유의 생각인 것이다. 가령 『논고』에서 ‘~’이라는 상징의 의미(Bedeutung)는 우리가 논리-구문론적 사용에서 ‘~’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 ‘~’의 의미로부터, 의미체 비유에 따르면, “~p”, “~~~p”, “~p ∨ ~p”, “~p.~p” 등등이 (무한히) 형성되게끔 하는 공통적 규칙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이라는 상징의 의미(Bedeutung)는 어떤 형이상학적 실재도 아니고, 세계에 속하는 대상도 아니며, 프레게 방식의 어떤 대상이나 실재도 아니다. 그것은 그 상징으로 우리가 “뜻이 있는 쓰임”이나 “논리-구문론적 사용”에 따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대답은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탐구』 559절에서 잘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미체는 문장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한 낱말(상징)이 지니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다. 특히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상황들이 지칭하는 것을, 또는 문장 메커니즘에서의 그것들의 기능을 조작(연산, Oper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⁴⁵⁾⁴⁶⁾

투 고 일: 2014. 08. 04.
 심사완료일: 2014. 11. 04.
 게재확정일: 2014. 11. 10

박정일

숙명여자대학교
 리더십교양교육원

45) 비트겐슈타인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논리적 입자들은 진리-조작들(operations, 연산들)이다. 따라서 낱말 ‘또는’(or)의 의미(meaning)는 명제들 ‘p’, ‘q’의 뜻(sense)을 명제 ‘p 또는 q’(p or q)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조작(operation, 연산)이다.”(Wittgenstein(1979), p.216)

46)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특히 이 논문의 초고에 담겨 있던 몇몇 오류와 오자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박정일(2014a), 『『논리-철학 논고』의 ‘부정적 사실’에 관하여』, 『철학사상』, 제51호, 173-200쪽.
- _____(2014b), 『『논리-철학 논고』의 일반성 개념에 관하여』, 『논리연구』, 제17집 제1호, 1-31쪽.
- 비트겐슈타인(2006),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논고』, 책세상.
- _____(2006),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책세상.
- _____(2013), 이기홍 옮김, 『심리철학적 소견들』, 아카넷.
- 프레게(2003), 박준용, 최원배 옮김, 『산수의 기초』, 아카넷.
- Anscombe, G. E. M. (1959),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
- Copi, I. M.(1958),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Mind*, No.266, pp.145-165.
- Fogelin, R. J.(1987), *Wittgenstein*, second edition, Routledge, New York.
- Frege, G.(1903), *Grundgesetze der Arithmetik II*, Verlag von Hermann Pohle, Jena.
- _____(1997), *The Frege Reader*, edited by Michael Beaney, Blackwell Publishing.
- Glock, H.(1996), *A Wittgenstein Dictionary*, Blackwell.
- Han, D.(2013), “Wittgenstein on Russell’s Theory of Logical Types”, *Journal of Philosophical Research*, vol. 38, pp.115-146.
- Ramsey, F. P.(1931),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 Wittgenstein, L.(1922), *T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Routledge & Kegan Paul LTD, London, Bosen and Henley.
- _____(1961), *Notebooks 1914-1916*,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Evanston.

_____ (1974), *Philosophical Grammar*, translated by A. Kenny, Basil Blackwell, Oxford.

_____ (1979),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translated by J. Schulte, et al. Basil Blackwell.

_____ (2003), *The Voices of Wittgenstein*, translated by G. Baker, et a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ABSTRACT

On Wittgenstein's "Bedeutungskörper"

Park, Jeong-Il

One of the important puzzles concerning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is this: What is his "Bedeutungskörper" (meaning-body)? With regard to this problem, I will show in this paper that "meaning-body," which is mentioned just once in the *Investigations*, is the "meaning" (Bedeutung) of the *Tractatus*, in particular, that of a logical constant. For this I will discuss in the sequence as follows. Firstly, we must take a look at the remarks that Wittgenstein adduced concretely. Those remarks are expressively given in *The Voices of Wittgenstein*, which we can call the "meaning-body simile." Secondly, we must confirm that what Wittgenstein adduced in the "meaning-body simile" is embodied in the *Tractatus*. The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in advance is whether logical constants such as ' \sim ' have meanings (Bedeutungen). Thirdly, if the thoughts related with the "meaning-body" belong to early Wittgenstein, then we need to explicate how the early Wittgenstein's theory of meaning is connected with the later Wittgenstein's. We will confirm that Wittgenstein overcame the thoughts concerning Bedeutungskörper (which were the results that he had accepted the important basic idea of Frege's theory of meaning) by partly accepting the new point of view of Hilbert's formalism. Fourthly, if the thoughts concerning Bedeutungskörper are Wittgenstein's, we must be able to confirm those thoughts in the prior development of the *Tractatus*. We will confirm that the "meaning-body" problem wa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or the early Wittgenstein that could lead to his abandoning the writing of the *Tractatus*.

Keywords: Wittgenstein, Frege, Bedeutungskörper, meaning, reference, sense

